

다의어 ‘맛’의 의미 고찰

김정아

Abstract

Kim, Jung-A. 2021. 05. Examining the Meaning of the Polysemous word, ‘Mat(taste)’. *Korean Linguistics* 91, 203~232. The purpose of th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olysemous word, ‘맛[taste]’, realized in complex expressions. In general, polysemous words expand their meaning based on their similarity with an object or share meanings with adjacent usages, thereby expanding sequentially. As the sensation which perceives physical stimuli, ‘맛’ is similar to the process of perceiving emotions experienced through the stimuli of exterior circumstances. Therefore, ‘맛’ is expanded in meaning to ‘emotion’ and ‘mood’ to be used as ‘살맛[pleasure of living]’ and ‘봄맛[mood of the spring]’. And ‘맛’ is closely related to food, and food is related to cooking and ingredients. Therefore, ‘맛’ is also analyzed as having the meaning of ‘delicious food’ and ‘processing’. Derived from the process of food intake which is directly connected to human survival, ‘맛’ concentrates on the interests of the language speaking public in that it doesn’t stop at survival but is also connected to behavior that delivers joy and satisfaction.

Keywords: polysemous word, taste(mat), meaning extension, basic meaning, extended meaning, sense, emotion, food, atmosphere

1. 들머리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 표현에서 실현되는 ‘맛’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¹⁾ ‘맛’은 다의어로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합성어와 구에서 구성요소로 사용되는 조어력이 높은 단어 중 하나이다.

1) 이 연구에서 합성어, 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맛’이 포함된 표현을 폭넓게 ‘복합 표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1) a. **맛**이 달콤하다/쓰다/맵다/없다.
 b. 이번 일은 새로운 **맛**이 없어 재미없다.
 c. 파르르 떨리는 낚싯대의 감촉. 바로 이 **맛**에 낚시를 하지.

『우리말샘』에 따르면 (1a)는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 (1b)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느끼는 기분’, (1c)는 ‘제격으로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기분’을 뜻한다. (1)의 의미는 다양한 합성어와 구에서도 실현된다.

- (2) a. **맛간장**으로 양념한 고기와 야채를 가늘게 채 썰어 만드는 류산슬 덮밥도 소개한다.
 b. 올여름엔 목적지를 정하여 그 주변의 **맛집**들을 탐방할 예정이다.
 c. 신혼 생활이 여간 **꿀맛**이 아니다.
 d. 가평은 아직 **시골 맛**이 나는 지역이라 어느 곳을 가도 인심이 후하다.

(2a)의 ‘**맛간장**’은 ‘간장에 청주나 맛술, 물 따위를 첨가하여 만든 양념’을 (2b)의 ‘**맛집**’은 ‘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을 뜻한다. 또한, (2c)의 ‘**꿀맛**’은 ‘매우 재미있거나 잇속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d)의 ‘**시골 맛**’은 ‘시골의 분위기나 시골에서 느끼는 기분 또는 시골 분위기가 나는 음식의 맛’을 뜻한다. 즉, (2a)와 (2b)는 ‘**맛**’의 의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의미를 지니는 반면, (2c)와 (2d)에서 사용된 ‘**맛**’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맛**’과 직접적인 관련을 찾기 어려운 [기분], [만족감], [분위기]를 뜻한다.

이처럼 ‘**맛**’은 복합 표현의 형식에서 다양한 의미로 나타난다. 이에 이 연구는 ‘**맛**’이 포함된 ‘**맛X**’, ‘**X맛**’, ‘**X의 맛**’, ‘**X은/는 맛**’을 ‘복합 표현’이라 부르기로 하고, 복합 표현에서 실현되는 ‘**맛**’의 의미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맛**’의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맛**’과 관련된 **앞선**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 ‘맛’과 관련한 연구는 주로 ‘미각어’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맛’ 자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였다.²⁾

먼저, 어휘장의 관점에서 미각어 어휘를 분류하고 분석한 연구는 최현배(1929)에서 미각 형용사를 ‘달다, 쓰다, 시다, 짫다, 짜다, 맵다’로 구분한 것을 시작으로 천시권(1982), 배해수(1982), 이승명(1988)에서 미각어의 어휘장(lexical field)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다.³⁾ 이 논의들에서는 한국어 미각어휘의 범위를 정립하고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미각어를 포함한 이른바 지각동사(perception verb) 또는 감각동사(sensory verb)에 대한 논의는 인지언어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이루어졌다. 인지언어학에서는 개념적 은유와 환유, 혼성이론을 기반으로 미각어의 의미 확장 과정을 논의하였다. 김중현(2001), 김준기(1999, 2008), 황혜진(2002), 정수진(2005), 김민혜(2009), 김해미(2014), 문금현(2015), 임혜원(2015) 등이 있었다. 정수진(2005)는 미각어의 의미 확장의 원리를 은유와 환유를 통해 설명하였고, 문금현(2015)에서는 연어, 상용구, 관용구, 속담과 같은 고정 표현에서 나타나는 미각어의 다의화 과정과 인지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단어 ‘맛’에 초점을 둔 임혜원(2015)은 ‘맛’ 자체의 개념화 양상을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으며, ‘맛’은 좋은 맛, 식욕, 욕구, 상태, 좋은 느낌 등으로 개념화됨을 밝혔다. 또 김형민(2018)은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맛형용사를 분석하였고 유희재(2020)는 담화에서 나타나는 ‘매운맛’의 확장된 의미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송지혜(2007), 백두현(2017) 등은 음식 조리서에 나타난

2) 최근의 연구에서는 미각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권우진(2019), 김형민(2018)에서는 ‘맛’과 ‘미각’에 대해서 입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권우진(2019)에서는 ‘식감(食感)’의 개념을 설명하고 식감의 하위를 ‘표면성’, ‘견고성’, ‘탄력성’, ‘점성’, ‘습윤성’, ‘열성’으로 분류하였다. 김형민(2018)에서는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맛’과 ‘미각’을 설명하고 언어적 용법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3) 미각과 관련된 논의에서 연구 대상을 지칭하는 명칭으로는 ‘미각적 그림씨’(최현배, 1929), ‘맛 그림씨’(배해수, 1982), ‘미각어’(천시권, 1982; 김준기, 1999; 정수진, 2003; 문금현, 2015), ‘미각형용사’(송정근, 2005; 김준기, 2008), ‘미각 표시 어군’(이승명, 1988) 등이 있다. 대체로 미각 형용사를 폭넓게 지칭하고 있다.

미각어를 대상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미각어의 쓰임을 상세히 논의하였고 김계연(2016), 이선희·김미금(2019)는 대조 언어학의 관점에서 미각어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계연(2016)은 한국어는 ‘맛(입맛)’, 일본어에서는 ‘미각형용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 발달하였음을 밝혔다. 이선희·김미금(2019)에서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달다/甜’의 의미 확장을 대조하면서 ‘달다/甜’는 미각 영역의 기본의미에서, 후각, 청각, 시각, 촉각, 감정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며 이것은 신체적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지금까지 ‘맛’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미각어의 범위를 정하고 미각어가 다의화되는 양상과 원리를 밝히는 데 초점이 놓여 있었다. 따라서 임혜원(2015)을 제외하면 ‘맛’ 자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최근 들어 음식과 관련된 방송 콘텐츠가 증가하고 음식과 맛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맛세권, 이맛현, 매운맛4)’ 등 맛과 관련한 새로운 어휘가 꾸준히 생산,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맛’을 포함한 복합 표현에서 ‘맛’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의미 구성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방법을 기술하고, 3장에서는 복합 표현에서 실현되는 ‘맛’의 기본의미와 확장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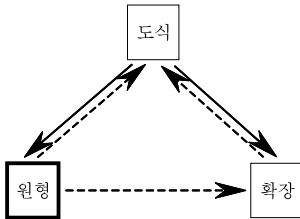
4) ‘맛세권’이란 ‘유명한 음식점이 가까이에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말하며, ‘이맛현’이란 ‘이 맛에 현실함’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또, ‘매운맛’의 경우 새로운 의미가 추가된 것인데, 어떤 일의 어려움이나 난이도의 정도가 매우 높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2. 연구 배경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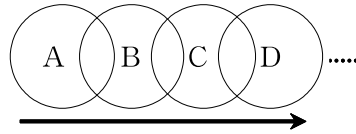
2.1.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

하나의 어휘 형태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 그 어휘를 다의어(polysemy)라고 한다. 이때 의미는 기본의미에서 확장의미로 파생되며, 의미들 간에는 서로 유연성을 지닌다.

임지룡(2018:134)에 따르면 다의어의 의미 확장은 <그림 1>의 ‘의미 망(semantic network)’ 구조와 <그림 2>의 ‘의미 연쇄(meaning chain)’ 구조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림 1> 의미 망 구조



<그림 2> 의미 연쇄 구조

<그림 1>의 의미 망 구조는 원형, 확장, 도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원형’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수평적으로 ‘확장’되며, 원형과 확장의 공통성을 추상화한 것이 ‘도식’이다. 예를 들어, ‘먹다’는 ‘사람’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건의 원형의미에서 ‘식물’이 물을 먹는 사건으로 확장된다. 원형과 확장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섭취 사건으로 도식화된다. 이러한 망을 바탕으로 ‘종이가 물을 먹다’와 같은 ‘구체물’로 확장되며, ‘뇌물을 먹다’와 같은 추상적 사건으로 ‘망구조’를 이루며 확장된다.

<그림 2>의 의미 연쇄 구조는 서로 인접한 용법끼리 의미를 공유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손’은 ‘사람의 손’(철수는 왼손이 오른손보다 더 크다)에서 ‘손가락’(반지를 꼴라 손에 끼었다)으로, ‘일하는 사람’(농사철에는 늘 손이 딸린다)으로, ‘일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나 기술’(한 권의 책을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간다)로 의미 연쇄가 일어난다.

이렇듯, 다의어는 구체적인 데서 추상적인 데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간의 경험은 이런 의미 확장의 동기가 된다.⁵⁾

Sweetser(1990)는 특히 지각 동사의 통시적 의미 변화는 신체적 지각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로부터 감정이나 정신 작용과 같은 추상적 의미로 체계적인 확장을 보인다고 했다. 구체적인 물리적 지각에서 추상적인 감정적 지각으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수많은 다의어 전체를 일반적인 원리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하나의 어휘소에 적어도 10개 안팎의 단의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 전체 단의의 파생 관계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단의가 갖는 계열적, 결합적 의미 특성을 살펴 확장 과정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남경완, 2005:161-163). 이 과정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들 간에 나타나는 유연성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⁶⁾

5) 임지룡(2018:135-137)은 다의어의 의미 확장 경로를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a. 사람→동물→식물→무생물

예) 그는 눈이 크다/너 왜 그렇게 자자미눈을 뜨니?/새싹의 눈/바둑판의 눈

b. 공간→시간→추상

예) 계곡이 깊다/밤이 깊다/인연이 깊다

c. 물리적 위치→사회적 위치→심리적 위치

예) 그는 방에 있다/그는 회사에 있다/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d. 문자성→비유성→판용성

예) 토끼는 앞발이 짧다/그는 위국어 실력이 짧다/우리집 양반은 입이 짧다

e. 내용어→기능어

예) 쓰레기를 버렸다/서류 봉치를 찢어버렸다/약속을 잊어 버렸다

6)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용법설use theory) 모든 기본 의미와 확장의미가 항상 연쇄적인 유연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영어 어휘소 [FAST]의 경우 <단단한>→<착실한>→<빠른>의 순서로 확장되되는 과정은 서로 유연성이 있지만, <단단한>과 <빠른> 사이에는 유연성을 감지하기 어렵다. 또한 기본 의미와 확장의미 간에 방사상(rayonnement)으로 확장되는 경우에도 유연성을 찾기 어렵다(홍사만, 2007:89-98, 참조).

- (3) a. 설탕의 500배에 해당하는 **단맛**을 가진 무색의 결정체이다.
 b. 이제는 사흘에 한번은 **고추장과 김치 맛**을 봐야 생체리듬이 유지되었
 다.
 c. **담배맛**을 느끼는 내 미각은 지난 석 달 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
 었다.
 d. 미국의 IBM사 직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하는 데 이해가 간다.
 e. 그러나 도시의 채색된 과실에서는 도대체 **옛맛**이 나지 않는다.

(3)에서 다의어 ‘맛’은 미각형용사, 음식, 음식 이외의 요소와 결합하여 각각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맛’은 (3a), (3b)와 같이 미각 형용사, 음식과의 결합에서는 기본의미인 [미각]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3c)의 담배는 입으로 지각하는 대상이지만 음식이 혀에 닿는 감각이 아닌 다른 [신체적 감각]이 지각된다. 그리고 (3d)에서 동사 ‘죽다’와 결합한 ‘맛’은 신체적 지각이 아닌 [감정]의 지각이 된다. 또한 ‘맛’은 (3e)와 같이 주변 사물과 현상을 분석하고 인지하는 [분위기]의 의미로 이어진다.

우리는 [미각]이라는 신체적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신체적 감각]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감정]이라는 정신적 작용과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신체를 벗어난 사태나 대상의 [분위기]를 분석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추상화할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은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맛’의 공기어와 사용 맥락에서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결합 관계를 이루는 ‘맛’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다의어의 의미 확장 양상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에서 탐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맛’의 의미를 복합 표현에서 살펴보고 다양하게 실현되는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 대상이 되는 복합 표현을 선정하고 다음으로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를 구분하여 마지막으로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먼저 ‘맛’이 포함된 복합 표현은 다음의 채널을 통해 수집하였다.

첫째, 『우리말샘』에서 명사 ‘맛’을 포함한 복합 표현을 추출하였다.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사전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대폭 수록하고 쉽게 뜻을 풀이를 수정하여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든 웹사전이며, 현재(2021년 3월) 1,125,558개의 표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⁷⁾ 『우리말샘』에서 ‘맛’이 포함된 표제어를 추출하여 이 중에서 동형어, 옛말, 북한어, 방언, 비표준형, 전문어를 제외한 표제어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⁸⁾

둘째,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맛’을 포함한 복합 표현을 살펴보기 위해 <Trend 21> 말뭉치에서 ‘맛’의 용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Trend 21>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수집하여 가공한 자료로,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 단어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최근 사용되는 어휘를 수집하기 위해 <네이버 오픈 사전>을 참고하였다. <네이버 오픈 사전>은 역사, 언어, 과학,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를 사용자 누구나 등록하고 뜻을 풀이를 할 수 있어, 전문 분야의 용어부터 유행하는 어휘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최근의 화제가 되는 주

7)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 범주별 통계 참고

8) 조개류인 ‘맛’과 ‘맛 감각샘’ 등의 전문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의 어휘들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예를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a. 우리말샘: 감칠맛, 꿀맛, 뒷맛, 탄맛, 복숭아 맛, 손맛, 시골 맛, 맛간장, 맛김, 맛기행 ...
 b. Trend 21: 흠맛, 불맛, 책맛, 맛축제, 맛평, 맛플...
 c. 네이버 오픈 사전: 맛라벨, 대존맛, 할매입맛, 소품맛집, 맛저하세요, 맛웃다...

『우리말샘』의 자료에서는 표제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풀이되어 있고 용례도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용되는 복합 표현을 확인하기 어려웠고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표현들도 있었다. 반면 <네이버 오픈 사전>과 <Trend 21>에서는 최근 사용되는 ‘맛’과 관련된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의미 분석이 쉽지 않았다. 이런 경우 신문 기사 자료를 참고하여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의 용례도 참고하였다.⁹⁾

다음으로 자료 분석은 우선 ‘맛’을 기본의미와 확장의미로 분석하기 위해 ‘맛’의 의미가 [+미각]인 것과 [-미각]인 것으로 구분하였다. [+미각]은 복합 표현에서 ‘맛’이 기본의미로 나타나는 경우이고 [-미각]은 확장의미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컨대, ‘신맛’, ‘단맛’, ‘김치맛’, ‘국물맛’에서 ‘맛’은 기본의미에 해당하며 ‘시골맛’, ‘잠맛’, ‘돈맛’에서 ‘맛’은 감정이나 분위기 등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확장의미의 경우 구체물로의 확장과 추상적 의미로 확장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확장의미는 기본의미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며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복합 표현의 의미는 『우리말샘』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미등재어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용례를 분석하여 주관적인 해석이

9)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예문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와 『우리말샘』의 용례를 인용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예문은 인터넷 신문 기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였다. 또한 예문에서 제시하는 복합 표현의 띄어쓰기는 용례의 출처에 따랐음을 미리 밝힌다.

되지 않도록 하였다.¹⁰⁾ 한편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표현은 각각의 의미를 모두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손맛’은 음식 조리와 관련된 문장과 낚시와 관련된 문장, 스포츠와 관련된 문장 등에서 나타났으므로 ‘조리를 위한 가공’과 ‘감각’, ‘감정’의 의미가 모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맛’, ‘꿀맛’, ‘맛집’, ‘매운맛’ 등 합성어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들에 대해서는 용례를 따로 살펴 보면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되는 원리를 찾아보았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다의어 ‘맛’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3. ‘맛’의 의미 양상

3.1. ‘맛’의 기본의미

‘맛’의 기본의미는 ‘음식 따위를 혀에 댈 때에 느끼는 감각’이다. 다음은 기본의미로 쓰인 ‘맛’의 예이다.

- (5) a. **신맛**이 많이 날 경우에는 설탕으로 **맛**춰도 좋다.
- b. **짠맛**이나 **뚱**은 **맛**이 나는 **멸치**는 **피**한다.
- c. 설탕의 500배에 해당하는 **단맛**을 가진 무색의 결정체이다.
- d. 고추의 **매운맛**에는 슬픔과 외로움을 견디게 하는 힘 같은 것이 있었다.

‘맛’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5)에서의 ‘맛’이다. (5)의 ‘맛’은 선행

10) 의미 해석에 있어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용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해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였다. 예컨대, ‘맛집’에 대해서는 『우리말샘』의 뜻풀이(음식의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음식점)를 참고하였고 최근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잘하는 가게’, ‘잘하는’의 의미는 최대한 많은 용례를 통해서 의미를 확인하였다. 인터넷 뉴스 기사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의 용례를 분석하였고, 의미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에서 1920년에서 1999년까지 발행된 신문 기사에서 사용된 ‘맛집’의 용례도 확인하였다.

하는 미각 형용사의 감각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의 네 가지 미각이 있고 이외에도 짙은맛, 매운맛 등도 ‘맛’을 통해 표현된다.

- (6) a. 이 왕만두에는 무말랭이가 들어가 **꼬들꼬들한 맛**이 일품이고, 만두소에는 오리고기가 들어가 담백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 b. 소금물에 절인 고추에 소를 채워 소박이를 담그면 **매콤한 맛**과 시원하면서도 **아삭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 c. 장 본부장은 또 “우리밀은 글루텐 함량이 낮아 **졸깃한 맛**은 떨어지나 정제를 덜 함으로써 밀 고유의 영양소나 구수한 맛은 오히려 수입밀에 비해 월등하다.”고 말했다.

(6)에서 ‘꼬들꼬들하다, 아삭하다, 졸깃하다’는 혀에 있는 맛봉오리가 침에 녹은 화학 물질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감각인 미각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먹거나 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인 식감(食感)을 의미한다. 이에 ‘맛’의 기본의미는 (5)의 [미각]과 (6)의 [식감]을 모두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¹⁾

미각이나 식감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결합한 구성 외에도 ‘맛’은 다음과 같이 음식명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 (7) a. 타박타박 씹히는 **퐁치 맛**은 분명히 고소한 맛 그것이었습시다.
- b.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두면 양념끼리 잘 어우러져 **고기 맛**을 한결 좋게 만든다.
- c. 굴짬뽕은 체철을 맛은 굴과 함께 죽순 표고 양송이 부추 등 각종 야채를 듬뿍 넣어 담백한 **국물맛**이 일품이다. (한국경제, 2001.11.22.)

11) 『우리말샘』에 따르면 ‘식감’은 ‘음식을 먹거나 씹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다. 권우진(2019:93)은 다양한 ‘식감’의 사용 패턴을 살펴보면 ‘식감’은 ‘저작 활동에서 느끼는 음식물의 조직감’과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물의 물성을 감지하는 감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d. 이제는 사흘에 한번은 고추장과 **김치 맛**을 봐야 생체리듬이 유지되었다.

(7)의 ‘**꽂치 맛, 고기 맛, 국물맛, 김치 맛**’은 모두 ‘X(음식 이름)에서 나는 맛’의 의미로 선행한 명사의 맛을 의미하므로 여기에서 ‘맛’은 기본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그런데 동일한 구성이지만 (8)에서 보듯이 의미상 차이가 있다.

- (8) a. 그동안 다양한 **과일맛** 소주를 개발해온 보헤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연이어 수출을 성사시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중도일보, 2020.11.29.)
- b. 해윤은 “여기에 오기 전 차 안에서도 **딸기맛** 젤리와 **바나나맛** 젤리를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2021.02.17.)
- c. 또 제일제당은 제품의 다양화에도 적극성을 보여 기존의 **포도맛** 외에 **레몬맛, 오렌지맛** 등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식품은 고유한 맛을 고수하면서 페트 등으로 용기를 다양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1.04.30.)
- d. 삼양식품은 14일부터 **불고기맛**을 가미한 스낵 ‘별난 불고기’를 400원에 시판한다. (연합뉴스, 1999.06.11.)

(8)의 ‘**과일맛, 딸기맛, 바나나맛, 포도맛, 레몬맛, 오렌지맛, 불고기맛**’은 ‘X(음식 이름)와 비슷한 맛’의 의미로 선행한 명사 자체의 맛이 아니라 그것과 비슷한 색, 맛, 향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8)에서 보다시피 ‘소주, 젤리, 음료수, 스낵’ 등에 실제로 과일, 불고기 등 해당 음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향과 맛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음식에 대해 사용된다.

요컨대 ‘맛’의 기본의미는 음식을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으로 미각과 식감을 통틀어 이르며, ‘어떤 음식에서 나는 맛’이라는 의미와 함께 ‘어떤 음식에서 나는 맛과 비슷한 맛’이라는 기본의미를 갖는다.

3.2. ‘맛’의 확장의미

3.2.1. 맛있는 음식

감각 동사의 의미 확장은 구체에서 추상을 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맛’은 구체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맛’이 [음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그렇다. ‘맛’은 중세국어에서는 음식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맛’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음식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 (9) a. 처서피 사르미 짚 **마술** 먹다가(처음에 사람이 땅 **음식**을 먹다가) 《석보상절 9:19》
 b. 모매 오솔 니부디 종괴 뿌리듯 흐며 이베 **마술** 머구디 病에 藥 먹듯 하여.(몸에 옷을 입되 종기를 짜듯 하며 입에 **음식**을 먹되 병에 약을 먹듯 하여.) 《선종영가집언해 상:42》

(9a)-(9b)에서 보듯이 중세국어에서 ‘맛’은 [음식]을 가리킨다. [음식]은 맛을 지각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맛’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9)와 같이 단독으로 음식을 의미하는 예는 없다. 다만, 다음 (10)의 예에서와 같이 ‘맛’과 ‘집, 여행, 골목’ 등의 명사와 결합하여 [맛있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 (10) a. 대형 외식업체는 물론 호텔과 지역 **맛집**까지 다양한 음식점의 레시피가 밀키트 제품으로 출시됐다. (서울 스포츠, 2021.02.11.)
 b. 산성시장 뒷문과 이어지는 **맛골목**에 칼국수를 내놓는 가게가 즐비하다. (국민일보, 2019.03.07.)
 c. 제4회 남산 ‘한국의 **맛축제**’ 9월 5일 개막. (매경헬스, 2019.09.02.)
 d. 태안으로 겨울 **맛여행** 오세요. (충남일보, 2018.12.25.)
 e. 동호인 만들어 동네 **맛탐험** 나서라. (주간동아, 2007.01.30.)

- f. 더위에 지친 당신, 떠나라! **맛캉스**. (YTN, 2018.08.04.)
 g. 하지만 정작 자신은 “역세권보다는 **맛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엑스포뉴스, 2019.10.13.)

(10)에서 ‘맛’은 [맛있는 음식]과 관련된다. (10a)의 ‘맛집’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 (10b)의 ‘맛골목’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가 몰려있는 골목, (10c)의 ‘맛축제’와 (10d)의 ‘맛여행’은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축제와 여행, (10e)의 ‘맛탐험’은 맛있는 음식을 찾는 탐험을 뜻한다. 또한 (10f)의 ‘맛캉스’는 ‘맛’과 ‘바캉스(vacance)’가 결합한 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휴가, (10g)의 ‘맛세권’은 ‘맛’과 ‘세권’의 결합으로 맛있는 음식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를 뜻한다.¹²⁾ 본래 ‘맛’은 감각을 의미하지만, (10)에서는 자극의 원천이 되는 음식, 특히 [맛있는 음식]을 나타내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킨다.

다음으로 ‘맛’은 [맛있는 음식]의 의미에서 음식을 맛있게 [가공]하였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 (11) a. 요리를 할 때는 꽃소금보다는 **맛소금**을, 밀가루 대신 부침가루로 부치는 것이 좋다. (매경헬스, 2020.08.04.)
 b. 달걀찜 비린내를 없애는 비법 재료는 바로 **맛술**이다. (글로벌이코노믹, 2020.10.05.)
 c. 그는 삼색판 특수 제작하는가 하면 간장 닭갈비, 양념 닭갈비에도 들어가는 비법 **맛간장**도 직접 제작한다고. (매일경제 TV, 2021.02.10.)
 d. 마지막으로 공개된 맛젓갈의 경우 김치뿐만 아니라 젓갈, 볶음 요리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만능 **맛젓갈**’이었다. 그렇다면 황태 다시마 풀국과 만능 맛젓갈은 어떻게 만들까? (소믈리에타임즈, 2021.02.21.)

12) 입지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세권(勢圈)’을 포함한 어휘가 최근 많이 사용되는데, 『우리말샘』에는 물세권(물勢圈), 법세권(法勢圈), 병세권(病勢圈), 뷰세권(視勢圈), 수세권(水勢圈), 금세권(金勢圈), 역세권(驛勢圈), 의세권(醫勢圈), 직세권(職勢圈), 학세권(學勢圈)이 등재되어 있으며, 비등재어로 슬세권(슬勢圈), 군세권(軍勢圈), 다세권(多勢圈), 세권 프리미엄(勢圈 premium) 등이 있다(2017, 2018, 2019, 신어 조사 참고.)

- e. 육수(肉水)는 고기 외에도 해산물, 채소 등을 끓여 우려낸 **맛국물**을 말하는데, 육수 하나만 잘 준비하면, 밥상은 풍성해지고 깊은 맛을 담는다. (비즈엔터, 2020.12.17.)
- f. 볶지 않은 생들기름으로 구운 **맛김**으로 입소문을 타며, 5점 만점에 4.9점이라는 높은 고객만족도를 기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 (해럴드경제, 2020.11.06.)
- g. 술안주용 캔 제품 전문제조업체인 우성식품이 만든 ‘칼몬드’다. **맛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등에 멸치가 섞여 있어 맥주에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2002.01.16.)

(11)에서 ‘맛’은 식재료의 하나인 ‘소금, 술, 간장, 젓갈, 국물, 김, 땅콩’이라는 후행 명사의 맛이 좋아지도록 [가공]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맛소금’은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화학조미료를 첨가한 조리용 소금, ‘맛술’은 요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쌀로 만든 술에 조미료를 첨가한 술, ‘맛간장’은 간장에 청주나 맛술, 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간장, ‘맛젓갈’은 멸치액젓에 국간장, 양파 등을 첨가하여 만든 젓갈, ‘맛국물’은 물에 채소나 고기, 해물 등을 첨가하여 만든 국물을 뜻한다. ‘맛김’은 기름을 바르고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구운 김이고, ‘맛땅콩’은 짭짤하고 달콤한 맛을 첨가한 땅콩을 뜻한다.¹³⁾ 모두 후행하는 재료를 가공하여 맛을 첨가하였음을 나타낸다.

(12) a. 할머니는 **손맛**이 좋아서 하시는 음식은 무엇이나 맛있다.

- b. 향정살 특유의 탄탄한 식감에 **칼맛**을 더했다. 고기를 써는 방법에 따라 식감은 달라지게 마련. (영남일보, 2019.11.07.)

13) ‘맛김치’ 역시 동일한 구성을 보이지만, 그 뜻에는 차이가 있다. 즉, ‘맛김치’는 ‘배추를 포기로 담그지 않고 썰어서 담근 김치(『우리말샘』)’를 뜻한다. 여기에서 ‘맛’은 ‘맛있는 음식’이나 ‘맛을 첨가한’의 의미로는 해석하기 어렵고, ‘맛’의 다른 확장된 의미에서 ‘썰어서 담근’의 의미를 추출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맛김치’의 ‘맛’이 음식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한 일련의 가공 과정을 함의하는 것으로 본다면 ‘맛김치’에서 ‘맛’은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먹기 편하게 하기 위한 조리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1)에서 ‘맛’은 좋은 맛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는 [가공]을 의미하였다면 (12)의 ‘맛’은 맛을 위한 [가공] 중에서도 사람의 기술을 의미하고 있다. (12a)의 ‘손맛’은 ‘음식을 만들 때 손으로 이루는 솜씨에서 우러나오는 맛’으로 ‘맛’은 음식의 맛을 위해 가공하는 방법과 정성을 뜻한다. (12b)의 ‘칼맛’도 요리할 때 사용하는 칼을 다루는 솜씨가 특별하여 음식의 맛을 더욱 좋게 한다는 뜻으로, ‘맛’은 칼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을 나타낸다.

즉 ‘맛’은 미각을 자극하는 원인인 [음식]에서 개념적으로 인접해 있는 좋은 맛을 위한 [가공]의 의미로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¹⁴⁾ 이런 ‘맛’의 의미 확장 양상은 기존의 미각어의 의미 확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미각에서 심리적인 감정과 느낌으로 확장되는 미각어와는 다르게 ‘맛’은 다층적인 확장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김형민(2018:13)은 미각어보다 ‘맛’이 더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 영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맛’의 사용역이 ‘미각’보다 더 넓다고 했다. 즉 언중들이 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맛’의 의미 확장은 미각어보다 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14) Ulman(1962:195-67)은 다의어의 생성 원인을 적용상의 추이(shifts in application), 사회적 환경의 특수화(specialization in a social milieu), 비유적 용법(figurative language), 동음어의 재해석(homonyms reinterpreted)으로 설명하였다. 이중 비유적 용법은 두 개념 간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metaphor)와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metonymy)를 기제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신체어 ‘머리’의 경우 ‘머리를 헤아린다(부분-전체)’, ‘머리가 멍석하다(신체-기능)’와 같이 신체의 부분이 사람을 가리키거나 전체가 특정한 기능을 가리키는 것은 인접성에 바탕을 둔 환유에 의해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책상머리(물리적 위치)’, ‘책머리(공간적 위치)’, ‘우두머리(사회적 위치)’는 신체의 위치와 물리적, 공간적, 사회적 위치의 유사성에 바탕을 둔 은유에 의해 의미가 확장되었다.

3.2.2. 미각 이외의 감각

‘맛’은 [미각 이외의 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미각은 촉각과 함께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각과 촉각은 자극의 원천이 가까이 있어야만 지각할 수 있는 감각이기 때문이다(김중현, 2001:36).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감각의 하나인 ‘미각’은 다른 감각으로의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미각은 지각 원리가 비슷한 촉각과 감각 기관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후각으로의 의미 전이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 (13) a. **흙맛**의 경우는 채소 등에 함유된 ‘2-에틸렌펜놀’이라는 분자 때문에 생긴다. 한테 이를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가운데 한 종류(OR11A1)에 변형이 있으면 **흙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오마이뉴스, 2019.05.02.)
- b. 사골, 닭, 돈골을 최적의 비율로 혼합하여 깊고 진한 고기 찜빵 육수를 베이스로, 얼큰하게 매운맛에 채소를 센불에 볶아낸 자연스러운 **불맛**이 특징이다. (디지털투데이, 2021.02.16.)
- c. 생선을 바로 구우면 살이 깨지고 비린내가 나는데 반건조를 하면 **비린맛**도 날아가고 살이 더 쫄깃쫄깃해진다. (헤럴드팝, 2021.01.22.)

(13)에서 ‘맛’은 음식을 혀에 댈 때 느끼는 감각이 아닌 [후각]을 나타낸다. (13a)의 ‘**흙맛**’은 음식이나 식재료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흙 냄새’, (13b)의 ‘**불맛**’은 찜빵을 만들 때 재료를 볶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연기 냄새’, (13c)의 ‘**비린맛**’은 ‘비린 냄새’를 의미한다. (13)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지각되는 감각이지만 미각보다는 후각에 더 가까운 감각이라 할 수 있다. 즉 미각을 지각하는 입과 인접해 있는 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후각을 ‘맛’으로 나타낸 것이다.

- (14) a. **몽둥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b. 용마골의 왕초 꼭지는 신입에게 **매맛**을 보여 주겠다고 몽둥이찜질도

- 서슴지 않는 인물로 막무가내에 안하무인이기에 양반가의 하수인들조차 한 수 무르고 가는 인물이다. (TV리포트, 2011.02.08.)
- c. 응급의학과 1년차 때 “아, 응급의학과 따위가 진료하려면 어설프게 하지 말고.”라면서 비아냥대는 내과 2년 차 선배에게 아마추어 복서의 때서운 **주먹맛**을 보여주었다가 징계를 먹기도 한다. (금강일보, 2020.04.01.)
- d. 한 방과제에서 제철을 맞은 송어를 잡기 위해 휴가철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낚싯대를 펼치고 **손맛**을 즐기고 있다. (동아일보, 2020.08.07.)

(14)에서 ‘맛’은 [촉각]을 나타낸다. (14a), (14b), (14c)에서 ‘맛’은 몽둥이, 매, 주먹 등의 물건이 피부에 닿을 때 느껴지는 감각을 의미한다. (14d)의 ‘손맛’도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질 때 전해지는 감각으로, 특히 (14d)에서는 낚싯대를 잡고 있을 때 고기가 입질을 하거나 당기는 힘이 손에 전하여 오는 느낌을 말한다. 손에서 느껴지는 촉각을 ‘맛’으로 표현한 것이다.

즉, ‘맛’은 미각뿐만 아니라 [미각 이외의 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 특히 맛을 보는 입과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촉각]과 맛을 볼 때 해당 음식이 직접 접촉하는 경험과의 유사성에 기반한 [촉각]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3.2.3. 감정

한국어 감각 동사의 의미 확장을 분석한 임지룡·송현주(2012:21-22)에 따르면 한국어의 감각 동사는 감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 정도에 따라 의미 확장의 정도가 다르다. 오감 중에서 비교적 분명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는 시각과 청각은 ‘이해’, ‘판단’, ‘수용’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의미가 확장되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촉각과 미각은 ‘경험’, ‘감정’의 의미로 확장된다.¹⁵⁾

- (15) a. 요즘처럼 **살맛** 안 나는 때가 없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겪어냈지만 지금은 고통이 더 심합니다. (아시아경제, 2019.11.22.)
- b. 미국의 IBM사 직원들이 **죽을 맛**이라고 하는 데 이해가 간다.
- c.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직업일지라도 가치를 찾아내면 일 맛을 알게 되고 **일 맛**을 알게 되면 일류가 될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 2015.10.21.)
- d.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공이라는 속도에 눈이 멀어 방향을 잃고, 온갖 근심 걱정으로 **밥맛**과 **잠맛**을 모르고 있다. (제주의소리, 2020.01.03.)

(15)에서 ‘맛’은 사람의 [감정]을 의미한다. (15a)의 ‘살맛’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나 의욕을 뜻하고, (15b)에서 사용된 ‘죽을 맛’은 세상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이나 괴로움의 의미이다. 또, (15c)의 ‘일 맛’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재미나 만족스러운 기분을 의미하며, (15d)의 ‘밥맛’은 밥을 비롯한 음식이 입에 당기어 먹고 싶은 상태를 ‘잠맛’은 잠을 잘 때 느끼는 기분을 뜻한다. (15)는 ‘살다, 죽다, 일하다, 밥을 먹다, 잠을 자다’와 같은 행위에 대해 인간이 지각하는 [감정]을 ‘맛’으로 표현한 것인데, 본래 ‘맛’이 음식물 섭취라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느끼는 감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 (16) a. 부정과 부패는 이미 소문난 것이고 도이머이 이후 **돈맛**을 들인 그네들의 극성은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지만 단 한번도 문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 b. **싼 맛**에 입던 인조 모피가 고급화된 셈이다. (중앙일보, 2019.12.10.)
- c. 샤넬 매니큐어 **비싼 맛**에 구입해 봤어요. 발색은 너무 좋아요. (네이버 TV, 신사동그여자, 2018.01.16.)

(16)에서 ‘맛’은 선행 요소로 인해 지각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

15) 지각을 제공하는 대상이 가장 멀고 불명확한 후각은 ‘추측’의 의미로 확장된다. 인간의 ‘후각’은 동물에 비해 다양한 냄새를 식별해내기 어렵고, 쉽게 ‘순응(adaptation)’하여 소실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한 정보에 비해 정보 가치가 낮다. 따라서 ‘이해’나 ‘읽’의 의미보다는 ‘추측’이라는 불명확한 의미로 확장되는 것이다(임지룡·송현주, 2012:22).

타낸다. (16a)의 ‘돈맛’은 돈을 쓰거나 벌거나 모으는 재미라는 감정을 나타낸다. (16b-c)는 ‘싼 맛에’, ‘비싼 맛에’와 같은 꼴로 쓰이면서 ‘싼 맛’은 물건의 값이 저렴한 것에 느껴지는 만족감을 나타내며, 이와 반대로 ‘비싼 맛’은 높은 가격이 좋은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물건 구매의 동기가 된다. ‘맛’은 물건의 가격이 주는 만족감, 혹은 기대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 (16)의 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맛’은 선행 요소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 선행 요소가 원인이 되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것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지각하는 직접적인 감각인 ‘맛’과 경험을 통해 직접 느끼는 ‘감정’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맛’은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낸다. 돈을 벌거나, 물건 값이 싼 상황은 결과적으로 만족감, 기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우리는 ‘맛’을 통해 표현한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맛’ 중에서 ‘입맛’과 ‘밥맛’의 의미 확장은 조금 특별하다.

- (17) a. 소량의 알코올은 **입맛**을 돋우고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b. 제청을 복수로 해 차장을 대통령이 선택하게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입맛**에 맞는 차장 선택권을 주겠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국민일보, 2021.01.22.)
 c. 자기를 **입맛**에 따라 곡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뉴시스, 2020.07.07.)
- (18) a. 배는 고프는데 **밥맛**이 없다.
 b. 얼마나 **밥맛** 떨어진 세상인지 밥상 차리기 한 장면부터 살펴봅시다.
 c. 난 이럴 때 웃는 여자가 제일 **밥맛**이니까.

(17)의 ‘입맛’과 (18)의 ‘밥맛’은 앞서 살펴본 (15), (16)과는 다른 양상으로, ‘입맛’과 ‘밥맛’이 그 자체로 [욕구]나 [선호], [불쾌감]이라는 감정을 나타낸다. ‘입맛’의 기본의미는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느끼

는 맛에 대한 감각'이지만 (17a)의 ‘입맛을 돋우다’에서 ‘입맛’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 (17b)의 ‘입맛’은 개인의 ‘선호’나 ‘의도’, (17c)에서는 ‘생각’, ‘의도’를 나타낸다. 이와 관련하여 Sweetser(1990)는 ‘미각’은 개인적인 선호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미각’은 지각 대상을 직접 섭취한다는 점에서 대상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각 결과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감각이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개인적인 선호나 의도를 ‘맛’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선호’의 의미를 갖는 표현이 바로 한국어에서는 ‘입맛’에 해당한다.

‘밥맛’도 감정을 나타내는데, 특히 [식욕]이나 [불쾌감]을 표현한다. (18a)의 ‘밥맛’은 ‘밥이나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하지만 (18b)의 ‘밥맛’은 ‘떨어지다’와 결합하여 ‘불쾌하다’의 의미가 되고, (18c)에서 ‘밥맛’은 ‘떨어지다’나 ‘없다’와의 공기 없이 그 자체로 ‘불쾌함’을 의미한다. 원래 ‘밥맛’은 ‘밥에서 나는 맛’이라는 의미를 갖지만, ‘떨어지다’, ‘없다’와 결합하여 상대방의 말, 행동 따위가 불쾌하고 역겹다는 의미의 관용표현으로 쓰인다. 하지만 ‘밥맛’은 ‘떨어지다’와 ‘없다’가 없이도 (18c)와 같이 의미를 유지하면서 불쾌함의 의미를 나타낸다.¹⁷⁾ ‘입맛’과 ‘밥맛’은 복합어 자체가 하나의 의미로 확장되어 입맛은 [선호], [의도], [욕구], 밥맛은 [식욕]과 [불쾌감]이라는 특정한 [감정]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16) 박정운 외 옮김(2006:83-92) 참조.

17) 구현정(2009:19)은 ‘버르장머리 없다’, ‘주변머리 없다’가 공기관계를 가지는 ‘없다’와 함께 사용되다가 뒤에 오는 말이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같은 개념을 나타내게 되는 통합적 단축, 다시 말해 형태론적 환유로 부분이 전체의 뜻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박진호(2003:377-378)은 ‘바가지’나 ‘오리발’이 ‘긁다’, ‘내밀다’ 없이도 원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의미의 쓸림’, ‘의미의 번짐’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의미의 쓸림’ 혹은 ‘의미의 번짐’ 현상이란 ‘바가지를 긁다’라는 구성 전체가 지니던 의미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 안의 한 단어에 쓸리게 되는 변화를 말하는데, 이런 현상으로 말미암아 구성 내의 기능 부담의 분포가 변하게 된 것이다. 결국 관용표현 전체가 가지던 의미를 ‘바가지’와 ‘오리발’이 모두 부담하게 된 것이다.

3.2.4. 분위기

‘맛’의 의미는 더 확장되어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태에서 분석되는 대상의 [상태], [분위기]를 표현한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거나 사태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나 사태의 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을 ‘맛’으로 표현할 수 있다.

- (19) a. 동네를 하나 지나서부터는 눈 대신 발들이 나오며 길도 **촌맛**이 나기 시작했다.
 b. 그러나 도시의 채색된 과실에서는 도대체 **옛맛**이 나지 않는다.
 c. 번뜩이는 재치가 종횡무진 행간을 누비는 그의 **글맛**을 느낄 수 있다.
 d. 이 가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눈치챌 수 있지만, 2집의 랩은 **각운의 맛**이 넘쳐난다.
 e.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우주 순환은 행복을 향해 있고 눈 속에서 봄이 오는 걸 볼 때 진짜 **봄맛**이 느껴진다. (경인일보, 2013.04.05.)

(19)에서 ‘맛’은 [상태]나 [분위기]를 나타낸다. (19a)에서 ‘촌맛’은 시골의 정취, 분위기를 의미하며, (19b)의 ‘옛맛’에서도 ‘맛’은 옛날의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9c)의 ‘글맛’은 작가가 쓰는 글이 갖는 특유의 분위기, (19d)의 ‘각운의 맛’에서도 ‘맛’은 각운에서 느낄 수 있는 고유의 분위기를 말한다. (19e)에서도 ‘맛’은 봄에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맛’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상태, 분위기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매운맛’도 미각에서 [분위기]로 의미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20) a. 오직 빈센조만이 가능한 마피아식 **매운맛** 응징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스포츠동아, 2021.02.17.)
 b. ‘차이나는 클라스’ **매운맛** 버전, 카오스재단 온라인 강의로 만난다. (테일리안, 2020.09.08.)
 c. 첫 방송부터 19세 시청등급을 예고한 ‘조선구마사’에서 장동윤이 어떤

매운맛 활약을 펼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싱글리스트 2021.03.22.)

- d. ‘싱어게인’은 단 한명을 고를 필요 없이 모두에게 표를 줄 수 있어 투표마저 **순한맛**이라는 반응을 얻고 있다. (뉴스엔, 2021.02.05.)

미각형용사 ‘맵다’와 ‘맛’이 결합한 ‘매운맛’은 ‘입 안 점막을 자극하였을 때 느낄 수 있는 알알한 맛’을 의미하지만, (20a-c)에서는 ‘매운맛’이 비유적 의미로 상황이나 사태의 분위기가 [높은 수준/정도]에 이름을 의미한다. (20a)에서는 가혹함의 정도가 높은 응징을 의미하고, (20b)에서는 강의 난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c)에서도 매운맛은 열정적이고 강력한 활약을 의미한다. (20d)의 ‘순한맛’은 ‘매운맛’과 상반되는 의미로 난이도나 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요컨대, ‘매운맛’과 ‘순한맛’은 미각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가 어떤 상황이나 사태의 분위기의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다음의 ‘꿀맛’도 ‘매운맛’과 같이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1) a. 토종꿀이라서 그런지 **꿀맛**이 다르다.

- b. 그 산토끼 옆에는 작은 웅달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물맛이 **꿀맛**이었다.
- c. 잉글랜드축구협회컵을 벤치에서 구경하며 **꿀맛** 휴식을 즐긴 손흥민 (토트넘)이 주중 리그 경기에서 시즌 25번째 공격 포인트를 노린다. (서울경제 2021.01.11.)
- d. 네이버, 쇼핑·간편결제 **꿀맛** 봤다. (파이낸셜뉴스, 2020.07.03.)
- e. 배우 정일우, 강지영, 이학주가 JTBC ‘야식남녀’로 만나 시청자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운다. 오는 5월 25일부터 **꿀맛** 조합의 독특한 삼각 로맨스를 맛볼 수 있다. (스포츠조선, 2020.04.27.)

‘꿀맛’은 원래 (21a)와 같이 ‘꿀’과 ‘맛’이 결합하여 ‘꿀의 단맛’이라는 의미이던 것이, (21b)와 같이 아주 맛이 좋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또 ‘꿀맛’은 ‘유익하다’, ‘재미있다’, ‘좋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21c)에서 ‘꿀맛 휴식’은 시기가 적절하고 유익한 휴식을 의미하고

(21d)는 이익, 이득을 나타낸다. (21e)에서 ‘꿀맛’은 ‘아주 좋은’을 의미한다. 이렇게 ‘꿀맛’은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가 있다.

‘맛’을 포함한 단어 가운데 특별히 흥미로운 것은 ‘맛집’의 사용 양상이다.

- (22) a. 첫 번째 여주인이었던 **李승례씨(86세로 별세)**는 일제 강점기부터 시장 한쪽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국밥을 끓여 인기를 모았고 2대째가 된 며느리 **李陽貴婢씨(70)**가 **맛집**으로 더 명성을 떨쳐 이름이 전국으로 번졌다고. (경향신문, 1987.02.04.)
- b. 유명한 **맛집**을 찾아 전국을 일주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매일경제, 1988.06.01.)

(22)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기사문인데, ‘맛집’은 1987년에 처음 사용된 유일한 용례가 발견되며 1997년까지는 한 해 10건 내외로만 나타나다가 1997년부터 70건 이상의 쓰임이 포착된다.¹⁸⁾ 꽤 오랫동안 ‘맛집’은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라는 의미로만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잘하는 가게]에서 어떤 일을 [잘하는]의 의미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 (23) a. 신세계의 리빙 &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가 다음 달 21일까지 ‘**소파 맛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시아경제, 2021.02.16.)
- b. **휴대폰 맛집** 된 **쿠팡-11**번가. (테크M, 2020.04.29.)
- c. 284㎡(약 86평)의 넓은 매장이 오로지 **이더웨어**와 **이지웨어**로만 구성된데다 아동, 남성, 여성 **이더웨어**와 **라운드 웨어**, 양말 존으로 공간이 세분화 돼 **이마트 광주점**은 ‘**이지웨어 맛집**’으로 통한다. (서울경제, 2021. 02. 23.)

¹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는 인터넷 뉴스가 대중화되기 이전인 1920-1999년까지 발행된 종이 신문을 원형 그대로 디지털화하여 웹에 구현한 뉴스 아카이빙 서비스로,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한겨레를 포함하고 있다.

(23)의 ‘소파 맛집’과 ‘휴대폰 맛집’, ‘이지웨어 맛집’은 소파나 휴대폰, 이지웨어가 싸고 품질이 좋은 가게를 뜻한다. 원래 ‘맛집’은 ‘음식을 잘하는 가게’인데 ‘음식’ 대신 ‘소파’와 ‘휴대폰’, ‘이지웨어’가 결합할 경우 ‘소파’나 ‘휴대폰’, ‘이지웨어’의 품질이나 가격이 좋아서 판매를 [잘하는 가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24)에서 ‘맛집’은 상품의 판매와는 거리가 떨어진 의미로 쓰인다.

- (24) a. 여유로운 표정과 함께 고난이도의 칼군무를 해내며 **‘무대 맛집’** 수석을 또 한 번 증명해냈다. (비즈엔터, 2021.03.22.)
- b. 이처럼 신하균과 여진구의 만남만으로도 **‘연기 맛집’**을 예고하는 JTBC 새 금토드라마 ‘괴물’은 오는 19일 밤 11시 첫 방송된다. (디지털조선, 2021.02.18.)
- c. 특히 김소연, 엄기준의 계약으로 누명까지 썼던 유진이 윤종훈의 아내로 돌아오는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깜짝 반전을 선사하며 시즌1에 이은 **‘엔딩 맛집’**을 예고했다. (매일경제, 2021.02.20.)
- d. ‘몽쳐야 쓴다’가 예능가 **‘캐릭터 맛집’**으로 거듭나며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뉴스엔, 2021.02.15.)
- e. 통통 튀는 설렘과 애절함을 넘나들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는 **로맨스 맛집**으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고 있다. (헤럴드팝, 2021.03.20.)

‘맛집’이 (24)와 같이 ‘무대, 연기, 엔딩, 캐릭터, 로맨스’와 결합하게 되면 ‘음식’과 ‘집’의 의미는 완전히 사라지고 [잘하는]이라는 의미만 유지된다. 따라서 이들은 각각 ‘무대를 잘 만드는 프로그램, 연기를 잘하는 드라마, 엔딩을 잘 만드는 드라마, 캐릭터를 잘 만드는 프로그램, 로맨스가 좋은 드라마’를 의미한다.

요컨대, 개인의 감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맛’은 객관적인 상황이나 사태에서 분석되는 대상의 상태, 분위기를 나타내는 의미로 확장된다. 특히 분위기, 상태를 나타내는 ‘맛’은 ‘매운맛’, ‘꿀맛’과 같이 합성어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최근 ‘맛집’의 의미도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에서 [잘하는 가게], [잘하는]의 의

미로 쓰이면서 대상의 상태를 표현하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4. 마무리

이 연구는 다의어 ‘맛’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복합 표현에서 실현되는 ‘맛’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리말샘』, <네이버 오픈 사전>, <Trend 21>말뭉치에서 ‘맛’이 포함된 복합 표현을 찾아, 복합 표현에서 실현되는 ‘맛’의 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기본의미에서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외에도 ‘뽕은맛’, ‘매운맛’ 등 미각 형용사와의 결합으로 미각을 나타낸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씹을 때 느끼는 감각인 식감, 음식이나 식재료의 맛, 비슷한 맛의 의미로도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확장 의미에서 ‘맛’은 크게 [맛있는 음식], [미각 이외의 감각], [감정], [분위기]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맛’의 자극 원인이 되는 음식을 중심으로 [맛있는 음식], 좋은 맛을 위한 [가공]의 의미로 점차 확장된다. ‘맛’과 개념적으로 인접한 영역에서 연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맛’은 [미각 이외의 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는데, 특히 맛을 보는 입과 물리적으로 가까운 [후각]과 맛을 볼 때 해당 음식이 직접 접촉하는 경험과의 유사성에 기반한 [촉각]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넷째, ‘맛’은 사람의 [감정]으로도 확장된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지각하는 직접적인 감각인 ‘맛’과 경험을 통해 직접 느끼는 ‘감정’의 인지 과정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맛’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상태], [분위기]를 의미한다.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보거나 경험하면서 그 상황이나 사태의

상태를 판단하게 되는데, ‘맛’을 통해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맛’은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는 미각어와는 다르게 음식과 같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며 다층적인 확장을 보인다. 그 이유는 ‘맛’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음식 섭취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맛’은 언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또 하나 ‘맛’의 의미 확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운맛’, ‘입맛’, ‘밥맛’, ‘맛집’, ‘꿀맛’ 등과 같이 기존에 사용되던 복합 표현들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 또한 ‘맛’이 갖는 용법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맛’이 포함된 복합 표현을 폭넓게 찾아 의미를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맛’에 대응하는 한자어 ‘미(味)’가 포함된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다른 감각의 ‘소리’, ‘냄새’의 의미 확장도 함께 비교·분석해 본다면 다양한 관점에서 감각과 관련된 어휘 의미의 확장 양상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참고문헌

- 구현정. 2009, “언어 속의 신체: 한국어 ‘머리’를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46. 1-28.
- 권우진. 2019, “식감어 연구.”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80. 87-112.
- 김계연. 2016, “한일 양국어의 味覺語(미각어) 관용표현 대조고찰: 내재 심리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한국일어일문학회) 97(1). 21-42.
- 김두식·나익주 역. 2010. 「인지언어학」 서울: 박이정. (Croft, W., & Cruse, D. A. 2004. *Cognitive Linguis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김민혜. 2009. “미각형용사의 의미 도식과 확장 원리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준기. 1999. “국어 미각어 고찰.”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의미학회) 5. 249-269.
- 김준기. 2008. “미각 형용사의 의미 고찰.”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100. 1-30.
- 김중현. 2001. “국어 공감각 표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 「담화와 인지」 (담화인지언어학회) 8(2). 23-46.
- 김진해. 2020. “‘맛(이) 있다’의 의미론: 연어구성의 단의성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의미학회) 69. 105-127.
- 김해미. “‘짜다’ 계열 어휘의 의미 확장 연구.”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의미학회) 46. 247-278.
- 김형민. 2018. “한국어 ‘맛 어휘 분류 체계.” 「기호학 연구」 (한국기호학회) 56. 7-44.
- 남길임 외. 2017-2019. 「신어 조사」. 국립국어원.
- 남경완. 2005. “의미 관계로서의 다의 파생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회) 17. 151-175.
- 남성우 역. 1987. 「의미론: 의미과학입문」. 서울: 답출판사. (Ullmann, S. 1962. *Semantics: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Oxford: Basil Blackwell)
- 문금현. 2015. “미각어 관련 고정표현에 나타난 다의화와 인지의미의 양상.”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102. 391-427.
- 박정운 외 역. 2006. 「어원론에서 화용론까지: 의미 구조의 은유적 문화적 양상」. 서울: 박이정. (Sweetser, E. 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박진호. 2003. “관용 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 「국어학」 (국어학회) 41. 361-384.
- 배해수. 1982. “맛 그림씨의 날말밭.” 「한글」 (한글학회) 176. 67-92.
- 백두현. 2017. “전통 음식조리서에 나타난 한국어 음식 맛 표현의 연구.” 「국어사연구」 (한국사연구학회) 24. 183-230.
- 송정근. 2005. “미각형용사의 형태론.” 「형태론」 7(2). 박이정. 303-323.
- 송지혜. 2007. “‘맵다’의 의미 변화 연구.”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98. 95-119.

- 유희재. 2020. “한국에서의 ‘매운맛’의 담화적 의미 연구.”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89. 251-284.
- 이선희·김미금. 2019. “한중 미각어 ‘달다’, ‘감’계열 어휘의 의미 확장 및 의미구성 양상 대조 연구.” 『중국학논총』 (한국중국문화학회) 64. 75-98.
- 이승명. 1988. “국어 미각 표시 어군의 구조에 대한 연구.”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100. 335-358.
- 임지룡. 2018. 『한국어 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 임지룡·김동환 역. 2008. 『인지언어학 기초』 서울: 한국문화사. (Evans, V., & Green, M. 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임지룡·송현주. 2012. “감각 동사의 의미 확장 양상 연구.” 『담화와 인지』 (담화인지언어학회) 19(1). 155-179.
- 임혜원. 2015. “한국어 ‘맛’의 개념화.”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66. 351-372.
- 정수진. 2005. “미각어의 의미 확장 양상.” 『한국어 의미학』 (한국어 의미학회) 18. 149~174.
- 천시권. 1982. “국어 미각어의 구조.” 『어문연구』 (경북대학교 어학연구소) 7. 1~6.
- 최현배. 1929/2004. 『우리말본』 서울: 정음문화사.
- 황혜진. 2002. “미각 형용사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사만. 2007. 『국어 의미 분석론』 서울: 한국문화사.

국문초록

김정아. 2021. 05. 다의어 ‘맛’의 의미 고찰. *한국어학* 91, 203~232.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 표현에서 실현되는 다의어 ‘맛’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의어는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의미가 확장되거나 인접한 용법끼리 의미를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확장된다. ‘맛’은 신체적 자극을 지각하는 감각으로 우리가 외부의 상황이라는 자극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지각되는 과정이 비슷하다. 따라서 ‘맛’은 ‘감정’, ‘분위기’ 등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살맛’, ‘봄맛’과 같이 쓰인다. 또 ‘맛’은 음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음식은 요리와 재료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맛’은 ‘맛있는 음식’과 ‘가공’ 등의 의미로도 분석된다.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음식 섭취 과정에서 파생된 ‘맛’은 생존에만 그치지 않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언중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주제어: 감각, 감정, 기본의미, 다의어, 맛, 미각, 분위기, 확장 의미

김정아(Kim Jung-A)

말라야국립대학교 아시아·유럽언어학과 객원교수

University of Malaya, 50603 Kuala Lumpur, Malaysia

전화: +60379073063

전자우편: piscean00@hanmail.net

원고접수일: 2021. 03. 29.

심사완료일: 2021. 04. 19.

게재결정일: 2021. 04. 30.